

나이지리아, 외채상환부담 경감 호소

□ 외채 상환불능 선언 가능성 대두

- 아프리카의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의 경제대표단은 4월 26일 영국 방문중 330억 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외채의 상환부담으로 외채 상환불능을 선언할 수 있다고 경고함.
- 경제대표단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76.7%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약 19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하였고 신규 외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오히려 총외채는 약 21억 달러 증가하였음.
- 오바산조 나이지리아 대통령도 의회가 동의하면 외채 상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, 의회도 상환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음.

□ 외채 리스케줄링을 겨냥한 발언

-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외채상환 중지 가능성 발언은 아프리카 최빈국 부채탕감 대상에서 제외되고, IMF가 최근의 고유가로 동국에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는 보고서에 반발한 것으로 분석됨.
- 2005년 2월 초에 미국, 영국 등 G7 재무장관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최빈국을 비롯한 전세계 최빈국의 부채를 100% 탕감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¹⁾했으나, 나이지리아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음.

- 또한 IMF는 2005년 3월 보고서에서 최근의 고유가로 아프리카 최대원유 생산국인 동국의 외채상환능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나, 나이지리아 채무조정국은 신속한 부채 경감을 주장한 바 있음.
- 나이지리아는 아르헨티나와 같이 1달러당 30센트를 상환하는 리스 케줄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, 동 의견이 수용 되면 동국의 총외채는 90억~170억 달러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.
- 동국은 2004년도 기준으로 인구 1억 3,650만명, 수출 34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, 1인당 GDP가 478달러에 불과하고 매월 5세 이하의 어린이가 7만 9,000명이 사망할 정도의 빈국임.

전문연구원 도 현 철 (☎3779-6676)

E-mail : loki@koreaexim.go.kr

1) 영국은 최빈국들 부채의 100% 탕감을 주장하면서 IMF가 보유중인 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으나, 미국이 재원마련 방법에 반대하고 있음.